

“잘 곳 마땅치 않아” 낮에만 머무는 전남 관광



다른 지역민 2년 간 전남 숙박여행 소비액 37% 급감 숙박시설 많지만 영세하고 여수·목포 등에 70% 몰려 5성급 객실 이용률 '전국 1위'... 고품질 시설 늘려야

코로나19를 겪은 지난 2년 동안 다른 지역민의 전남 숙박여행 소비액이 37%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숙박·교통 시설 확충과 코로나19 이후 관광산업 스마트화 흐름에 맞춰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17일 발표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 목포본부의 공동 연구 자료 '코로나19 이후 전남지역 관광산업의 현황과 발전 과제'에 담겼다. 자료에 따르면 전남을 찾은 관광객들의 소비 금액은 지난 2020년에는 전년보다 48.6% 급감한 뒤 2021년에는 4.9% 증가하며 소폭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관광소비액이 지난 2021년 전년보다 14.1%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전남 회복 속도는

느린 편이라고 한은 측은 설명했다. 전남지역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관광산업은 숙박업이다. 지난 2021년 전남 숙박여행 소비액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보다 37.1% 감소했다. 같은 기간 당일 여행 소비액이 18.6% 줄어든 데 비해 감소 폭이 컸다. 전남 관광소비에서 55.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음료 소비액은 2년 새 7.5% 줄었다. 전남 관광소비에서 식음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평균 지출액을 따지면 숙박여행은 전체 지출액의 66.5%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다. 지난 2021년 기준 전남 관광 1회 평균 지출액은 11만7000원이었는데, 숙박 여행일 때는 20만8000원으로 지출액이 늘어났다. 이는 당일 여행 평균 지출액(6만1000원)의 3배 넘는 수준이다.

전남의 숙박여행 지출액 비중은 제주(99.1%), 강원(80.6%), 부산(70.8%)에 이어 전국 4번째로 높다. 숙박여행 비중이 높은 전남은 관광소비액 규모도 전국 상위권을 차지한다. 2021년 기준 전남 관광여행 지출액은 1조8040억원으로, 제주(5조2000억원), 강원(3조2000억원), 경기(2조5000억원), 경남(1조8000억원)에 이어 5번째 규모에 들었다. 1인당 평균 지출액도 4만원으로, 전국 평균 3만원을 웃돌았다. 전남 1인당 지출액은 제주(11만5000원), 강원(7만1000원), 경기(5만5000원)에 이어 경남과 함께 전국 4번째로 많았다. 이처럼 전남 숙박여행 수요는 많지만, 관광숙박시설 규모가 작고 동부권에 몰린 점이 한계로 꼽힌다. 전남 관광숙박시설은 2021년 기준 342개로, 전국 14.4%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관광숙박업체 수는 서울, 제주에 이어 3번째로 많지만 규모가 영세한 탓에 업체당 객실 수(26실)는 전국 꼴찌를 나타냈다. 전남 객실 수는 8954실로, 제주(3만3662실), 강원(2만8482실), 경기(1만8176

실, 부산(1만5131실) 등에 비해 크게 부족했다. 객실 수가 적을뿐더러 여수(4154실·46.4%), 순천(967실·10.8%), 진도(576실·6.4%), 목포(557실·6.2%) 등 일부 지역에 객실의 70%가 집중됐다. 전남 4성급 이상 호텔은 전국의 3.1%에 불과하지만, 대형 숙박시설에 대한 수요는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전남 5성급 객실 이용률은 81.6%, 4성급은 64.5%에 달하며 각각 전국 1~2위 수준을 나타냈다. 고이라 한은 목포본부 과장은 “관광산업 활성화와 고용 증대를 위해서는 한국관광공사 국가인증 취득한 고품질 숙박시설을 늘려야 한다”며 “전남을 지나는 고속철 운행 횟수를 늘리고 여수엑스포역을 종착지로 하는 SRT 노선을 신설, 육산공항 건설 추진 등을 통해 교통 인프라 확충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남 관광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가 50대(21.0%)인 점을 고려해 전남 전체의 자연을 활용한 ‘생태관광’(에코투어리즘)과 관광산업 스마트화를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79.39(-20.47)
↓ 코스닥	709.71(-7.18)
↑ 금리 (국고채 3년)	3.484(+0.030)
↑ 환율 (USD)	1238.70(+3.40)

광주신보, 보증료율 0.2%P 감면

광주신보보증재단(광주신보)은 오는 6월 30일까지 보증료율을 0.2%포인트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보증료율 한시 감면'은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벤처부와 금융위원회의 '중소기업 복합위기 장기화 대응 방안'에 따라 광주신보를 포함한 전국 17개 지역신보보증재단이 시행한다. 보증료율 한시 감면은 신규 보증 신청에 한해 지원한다. 기보증회수보증과 브릿지보증,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지난 한 해 광주신보는 '보증료 지원 사업'으로 2만여 건, 9억3700만원 상당을 지원했다. 올해는 3억6000만원이 감면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귀남 광주신보 이사장은 “고금리에 따른 금융비용이 가중되면서 대책 방안으로 보증료율을 한시적으로 감면, 인하하게 됐다”며 “우리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광주은행, 지역아동센터 2곳에 설 선물

광주은행은 설을 앞두고 지역아동센터 2곳을 찾아 가전제품과 성금을 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고병일 은행장과 지역 우수 중소기업 CEO 모임인 광온리더스클럽(회장 김홍군·남선산업 회장) 회원들은 광주 북구 각화읍스콜지역아동센터와 동구 용산지역아동센터를 방문했다. 이들은 청소년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가전제품과 사무용품, 성금을 전달하고 복지시설 이용 아동들을 격려했다. 회원 26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광온리더스클럽은 명절마다 지역 복지시설을 후원하고 광주·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을 전하고 있다. 고병일 은행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과 당기순이익의 10% 이상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며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고, 지역과 같이 성장하는 100년 은행으로 거듭나겠다. 광주은행과 광온리더스클럽이 함께 상생 협력해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왼쪽 5번째)과 광온리더스클럽(회장 김홍군·왼쪽 7번째)이 17일 광주시 동구 용산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성금과 후원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전남신보 채무조정 금액 '코로나 전의 두 배'

전남신보채무조정센터, 지난해 444억원

전남신보보증재단은 17일 전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의 지난해 채무조정 금액은 444억원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220억원)의 2배 수준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전남도민 채무조정 건수는 같은 기간 240건에서 373건으로, 55.4%(133건) 늘었다. 전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는 전남신보가 전남 도로부터 수탁해 운영하고 있다. 설립 초기부터 지난해 말까지 6년 동안 2만 8000건의 금융복지 상담을 했다. 이를 통해 전남도민 1649명의 1690억원 상당 부채를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조정했다. 전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는 도민의 채무를 전액 탕감해주거나 일부 감면해주고, 금리 인하, 상환 기간 연장 등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전남도금융복지상담센터는 순천과 무안에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11개 시·군에 출장 상담을 나가고 있다. 채무 관련 도움이 필요한 도민이라면 누구나 전화, 인터넷, 방문 상담과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설선물은 지역 특산물로 농협 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택·맨 오른쪽)는 지난 16일 무안군 삼향읍 지역본부에 마련된 온라인 지역센터에서 '설맞이 첫라이브커머스 방송'을 진행하며 영암 대봉감발령이, 고흥 레드향, 여수 돌산갓김치 등을 최대 46% 할인 판매했다. <전남농협 제공>

전남농협-경북농협 고향사랑 상호 기부

농협 전남본부와 경북본부는 지역본부가 있는 서로의 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100만원 기부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종택 농협 전남본부장과 정재현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장은 이날 무안군 삼향읍 농협은행 전남영업부를 찾아 경북도에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납부했다. 이번 교류는 영·호남의 상생과 화합을 강화하고, 고향사랑기부제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며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정부 종합정보시스템 '고향사랑e음'을 통해 낼 수 있다. 전국 농·축협과 농협은행 창구에서도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다. 박 본부장은 “전남농협과 경북농협은 해마다 영호남 상생장터를 열어 꾸준히 화합하고 있다”며 “이번 고향사랑기부를 계기로 두 지역의 협력 관계가 더욱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분이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대유에이텍 '사랑의 헌혈' 캠페인 동참

대유에이텍은 지난 16일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운동(사진)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유에이텍 임직원들은 이날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광주공장에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의 헌혈 캠페인에 동참했다. 대유에이텍은 지난 2018년 대한적십자사와 '생명나눔단체' 협약을 맺고 꾸준히 헌혈 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의 하나로 광주 사랑의 열매에 성금을 기부했고, 겨울철 이웃을 위한 탄소장판 100개를 광주시에 전하기도 했다. 대유에이텍 관계자는 “혈액 수급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임직원들이 해마다 열리는 사랑의 헌혈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해서 헌혈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